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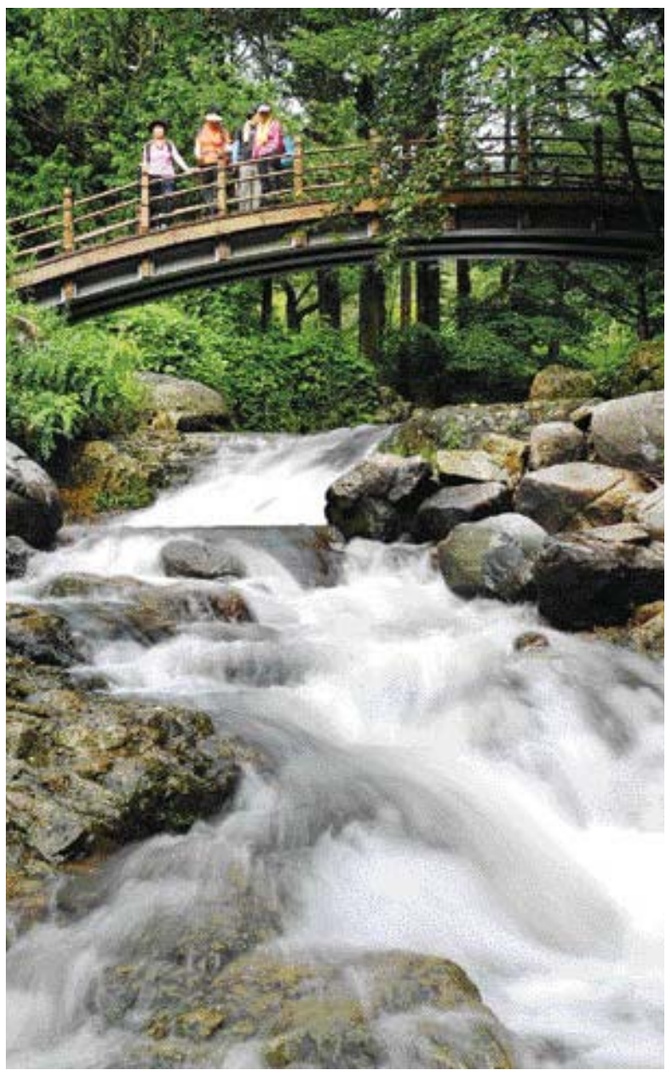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광주 25/30℃ 목포 25/29℃ 여수 25/29℃

단기 4343년 (음력 7월 8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54호 1판 2010년 8월 17일 화요일



16일 오후 소나기가 내린 뒤 무등산 증심사 계곡 구름다리에 선 등산객들이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소리에 매료돼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다음달 시민 의견 묻는다

광주시, 공청회 후 환경부에 공식 건의키로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과 관련 광주시가 다음달 시민공청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은 뒤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을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는 국립공원 지정과는 별도로 주상절리대의 유네스코 자연문화재 등재, 무등산 정상 공군부대 이전 등 3대 과제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그러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에는 면적이 다소 좁은데다, 국립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해 일부 마찰도 우려된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한라산·계룡산·지리산·북한산·설악산·가야산 등 다른 시·도 6곳의 국립공원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조만간 공청회를 개최해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달 국립공원 승격문제에 대해 환경부와 업무협의를 갖고, 지정절차 및 관리, 사유지 매입, 국립공원과 연계한 주요 생태자원시설 건립 등을 논의했으며 시의원·교수·시민 등 15명으로 무등산생태관리 TF(특별기구)팀을 구성해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와 협의과정에서 광주시가 관리 주체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무등산 도립공원 전체 면적이 30.32㎢에 불과해 가장 작은 규모의 국립공원인 월출산 국립공원(56㎢)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는 점 등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사유지가 20.27㎢로 전체 공원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어 개인 재산권 침해, 국립공원 지정 시 시민 이용 불편 등의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광주시가 시민공청회를 거쳐 무등산의 국립공원 승격을 환경부에 건의하면 환경부는 타당성 조사 후 주민설명·공청회를 통한 공원계획 입안, 관계기관 협의, 공원 심의·고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어 국립공원 지정까지는 최소 2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환경부에 정식 건의할 예정이며, 문제점들은 향후 환경부와 조정해 가면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공원 지정 시의 장·단점도 명확히 파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무등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는 공군 부대와 협의를 거쳐 무등산 정상 일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오늘 서울광장서 DJ 추도식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1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추모문화제와 추도식이 열린다.

김대중 대통령 추모위원회(위원장 김석수 전 국무총리)가 주최하는 이날 추모 문화제는 영화배우 문성근, 오정해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덕수 사물놀이패,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황지우 시인, 전라남도 도립국악단, 목포시립교향악단, 평화의 나무 합창단 등이 함께한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대통령을 추모하며 휴대폰으로 평화와 희망의 문자 보내기를 함께 진행한다.

공식 추모문화제에 앞서 이날 12시부터 서울광장에 분향소가 설치되며, 김대중 대통령의 생애를 담은 '역사의 터널', 시사 만화가들의 시사만평 전시, 시화 전시, 버마 민주화 운동 관련 사진 전시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이어서 18일 오전 10시에는 서울 국립현충원 유물전시관 앞에서 추도식이 진행된다.

광주에서도 18일까지 광주YMCA 무진관에 추모 분향소가 설치·운영된다.

/임동욱기자 tuim@

내년 대입 62%가 수시모집

원서 양식 통일

전국 196개 대학이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2011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에서 올해 총 입학정원의 약 62%인 23만5000여명의 신입생을 선발한다.

잠재력과 창의력을 중시하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크게 확대돼 전체 수시모집 선발인원의 14.6%인 3만4408명을 뽑는다. 대학별로 제각각이던 대입 지원서 양식을 하나로 통일하는 공통 원서제를 도입한 것도 이번 수시의 특징이다. 〈관련기사 7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6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최종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2011학년도 수시 모집요강을 발표했다.

전국 201개 4년제 대학 중 수시모집을 하는 대학은 196개대, 선발인원은 총 23만5250명으로 지난해보다 8158명이 늘었다.

광주·전남에서는 전남대가 2773명, 조선대가 3483명을 선발하는 것을 비롯해 ▲목포대 1190명 ▲순천대 1142명 ▲광주대 1517명 ▲광주여자대 950 ▲남부대 740명 ▲동신대 1384명 ▲호남대 1842명 ▲광주교육대 169명 등을 모집한다.

수시 선발 비율이 2009학년도 54.5%, 2010학년도 59%, 올해 61.6%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전형일정을 보면 다음달 8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2월7일까지 대학별 전형이 실시된다. 합격자는 12월 12일 발표되며, 등록기간은 12월 13~15일이다.

/채희종기자 chae@

DJ 서거 1주 '영원한 비서실장' 박지원 인터뷰 ▶5면

건강 맛 모두 실한 예산쌀 유후
★ 해물 뷔페 - 35,000원 ★
특별할인
히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227-6500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꿈틀대는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알 림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

경술국치 100년 맞아 최익현 서사극 광주 공연

8월 31일·9월 1일

2010년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경술국치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주일보사는 유림의 거목으로 을사조약 체결 후 항일의병활동을 전개했던 면암(勉菴) 최익현 선생의 우국충정을 그린 서사극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를 공연합니다.

'너희가 나라를 아느냐'는 타협과 꺾어짐을 거부했던 행동하는 지식인 면암 선생의 삶을 통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작품입니다.

표재순(JS씨어터 대표)씨가 연출을 맡고 '조선왕조 500년' 등을 집필한 신봉승씨가 희곡을 쓴 이번 작품에서는 주인공 최익현 역의 오현경을 비롯, 노현희·기정수등이 열연합니다. 〈관련기사 12면〉

19일(木) 오전 10시 본사 16층서 티켓 배부

- 일시 : 2010년 8월 31일(오후 7시30분), 9월 1일(오후 3시·7시30분)
- 장소 :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 주최 : 광주일보사, (재)광주공연예술재단, 광주연극협회
- 후원 : 부산저축은행 그룹, 광주시교육청
  라마다 플라자 광주호텔, 광주CBS
- 제작 : JS씨어터
- 문의 : 062-220-0541

光州日報社